

# 1985년을 보내면서...

한국타이어 제조(주) 의무실 김 선 애

어느새 찬바람에 콧등이 시린 까닭으로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아 두었지만 창문 너머로 들리는 우렁찬 기계의 함성은 여전히 귀에 쟁쟁하고 오늘처럼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면 유난히도 고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4년이란 긴 시간이 간혹 찾아오는 이들로 부터 이구동성으로 악취라며 상을 쟁그러도 “악취라니 무슨 말씀, 구수한 고무 냄새지” 하면서 오히려 핀잔 아닌 핀잔을 주고 둘러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만들어 주었나보다.

간호원이 어찌서 산업장에 가 있는지 알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무실이 무엇을 하는 곳이나고 묻는 이들이 가끔 있었다. 수년전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받고 언뜻 스친 생각으로 쉽게 말하자면 학교의 양호실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을 한 뒤로부터 그렇게 의무실을 표현해 왔었는데 과연 산업장에서 의무실의 역할이 학교의 양호실과 같은 것인가 하고 내게 물어본다.

그냥 한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선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장에서의 근로자와 학교에서의 학생이라는 환경과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추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산업장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보건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왔음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각 산업장은 물론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업장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지금, 학생시절의 보건간호학이 그리도 지겨웠고 학점따기는 왜 그리 힘들었는지 스치는 웃음속엔 송구스런 마음조차 생긴다.

병원이 아닌 생활의 전선(?)산업장 한 자리에 몸을 담아 비록 점심 한 끼이지만 한집안 사람들 처럼 한 솥밥을 먹으며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흰 유니폼의 차갑고 쌀쌀맞은 간호원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바꾸어보고자 항상 밝은 웃음과 친절로 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간혹 나 자신의 심경이 혼란스럽거나, 몸이 편치 않을때 나도 모르게 짜증스런 얼굴이 그려지고, 그럴때는 간호원도 아프냐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정말이지 평소의 마음 가짐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

짧지 않은 여러 날들을 지냈기에 그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적지않이 일어났었다. 나의 작은 도움으로 환자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발견했을 때 보람과 감사를 느끼게 되지만 그와 반면에 내 능력으로는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게 될 때는 나 자신의 작음에 한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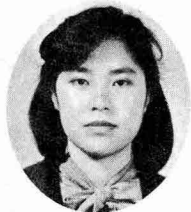
졸업한 후에는 항상 공부를 게을리 하지않는 성실하고 유능한 간호원이 되어 달라시던 교수님의 당부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와 닿는다.

일년에 한두 차례의 보건담당자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산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돌보고 있는 보건담당자로서 약간의 부족함도 갖게되지만 나 스스로 더욱더 나의 환자, 근로자들을 위해 꾸준히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다짐을 해본다.

보잘것 없는 나를 믿어주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언제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응할 수 있고 항상 밝은 미소를 지을수 있는 간호원이 되겠노라 다시한번 다짐을 하며 오늘도 커튼을 드리운다.

휴 게 실

## 가을밤의 사색



부산지부 이 금 우

밤을 맞을 준비도 없이 밤을 맞았다.  
달도 없는 밤이지만 향긋한 밤바람이 굳이 가을밤임을 알리려 한다.  
늘 찾아오는 밤과 다름없는 지극히 평범한 밤이런만 웬지 한껏 유정한 이밤을 무뎠히 보내고 싶지 않은 욕망은 아직도 내 맘이 소녀처럼 순수한 탓인지도 모른다.  
밤은 무섭다고들 한다. 아니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다. 온 천지에 가득한 어둠, 그 시야속으로 다만 귀기 소설이나 영화에서 가끔 보고 들을 수 있는 도깨비나 형클어진 유령 생각이 밤의 상념을 온통 지배하는 것 같았기에 밤이 무서웠고 밤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실상인 즉 밤은 그런것 같지만은 않다.  
우리 인간은 밤이 주는 무한한 의미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밤은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 무한한 의미를,

영광을, 은혜를, 한번쯤 음미해 본다면 밤이란 다만 어둡고 두려운 세계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 최소한 그 광란의 소음을 깡그리 집어 삼키고 온 천지를 아늑하고 포근한 어둠의 베일로 감싸고 만물을 조용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는 영광,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무서운 생의 투쟁에서 휴전하게 하고 잠시나마 안식을 취하게 해주는 그 은혜에는 감사할줄 아는 마음을 한번쯤은 가져보아야 할 것이다.

밤은 숨쉬고 있다.

고동치는 심장의 울림도 이렇듯 밤의 정적속에선 한결 장하고 자랑스럽고 다정하다. 이런 시간엔 내 영혼은 한결 거룩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가을 풀·꽃들에 질게 물든 가을밤, 바람이 갑자기 창변을 밀어 닥친다.